

# 어명소 제2차관, “안전한 여행주간 위해 도로관리 만전” 강조

- 25일 여행주간 앞두고 휴게소·국토관리사무소 찾아 안전도로 신재적 대응 당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여행주간(6.2~6.30)을 앞두고 5월 25일 천안삼거리휴게소, 도로교통연구원,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, 도로 분야 시설물 안전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  - 이번 방문은 도로 특별 안전점검(5.24~27)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,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도로포장 보수, 안전시설 보강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.
- 어 차관은 천안삼거리휴게소를 찾아 “6월 초 여행주간, 본격적 일상 회복 등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사고 증가도 우려된다”며,
  - “한국도로공사는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안전 집중점검과 함께 휴게소의 빈틈없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했다.
- 또한, 어 차관은 도로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도로파손 탐지장비, 교량상태평가 레이더 등 안전점검 첨단장비 개발과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,
  - “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에는 디지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, 도로 안전관리 기술개발과 활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강조했다.
- 아울러, 어 차관은 경기남부 지역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 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,

-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2022. 5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